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3)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필자가 위의 글을 집필했을 때 참조했던 ‘참고문헌’을 실었는데,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천주교 목판인쇄소와 관련된 자료와 논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위의 글 ‘3. 1860년대 목판인쇄소 건립과 천주교서적 간행’ 부분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목판인쇄소를 건립한 베르뇌 주교



천주교서적 저술을 담당한 다블뤼 주교

조선대목구의 사목지침 확립과 목관인쇄소의 건립

* 2021년 글(232~238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1856년 조선에 입국한 제4대 조선대목구장인 베르뇌(Berneux, 張敬一) 주교는 다블뤼(Daveluy, 安敦伊) 신부를 승계권을 가진 부대목구장으로 임명하고, 1857년 3월 25일 서울 ‘주교택’에서 다블뤼 주교의 서품식을 거행했다. 이때 참석한 신부들과 함께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교관에서 ‘조선대목구 성직자회의(시노드)’를 열어 선교사제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사목지침을 논의·결정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그해 8월 2일 자로 된 한글 사목서한, 이른바 「장 주교 윤시 제우서」(張主教諭示諸友書)를 통해서 공포되었고, 사제들에게는 1858년 4월 라틴어[‘사천 시노드와 조선 지역 시노드를 공포하며’]로 전달되었다.

1857년 시노드와 대목구장의 사목서한을 통해 기존부터 준수되어 오던 사목 지침이 재확인되는 한편 성사를 비롯한 각종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규정되었다. 예비신자나 신자들이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정한 기도문과 교리문답을 익혀야 했고, 사제는 그 학습 정도를 시험하여 그것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성사를 줄 수 있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관철시키고 아울러 천주교를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천주교 서적의 번역과 유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베르뇌 주교가 1857년 11월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우리처럼 선교사제 수가 부족한 처지에서는 책을 통해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조선에는 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선교사제 몇 명이 일체의 성무활동을 포기하고 언어공부에만 전념해서 교리서들을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1857년 11월 11일에 파리의방전교회 신학교 지도신부들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상, 429쪽.]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제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서적을 통한 ‘문서선교’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선교사제들이 필요한 천주교 서적을 번역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인식했다.

베르뇌 주교는 사목서한을 통해 선교사제들의 천주교 서적 번역과 저술을 권장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서적의 저술과 간행은 철저하게 대목구장인 자신의 허가 아래 진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선교사제들은 천주교서적의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 저술했을 경우 이를 서울 주교관에 있는 대목구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감수·인준받아야 했다. 간행된 서적의 유포 역시 서울의 대목구장이 전적으로 관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목구장의 감수·인준은 천주교 서적의 내용을 정통적인 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하고, 한문이나 프랑스로 작성된 원문을 조선어로 적절하게 번역·해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작용했다. 즉, 대목구장의 감수·인준을 거친 천주교서적들이 ‘정본(定本)’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베르뇌 주교는 더 많은 천주교 서적의 번역과 유포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미 천주교회 내에 유포되어 있던 서적들을 ‘검열’하고 ‘소각’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그는 1861년 2월 이전에 200권 이상의 책을 불태웠고, 폐낭신학교에 유학 간 조선인 신학생들이 자신의 허가 없이 구매한 한문·라틴어 책들

도 국내에 반입되면 역시 불태울 것이라고 했다. 베르뇌 주교는 조선대목구에 천주교 서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면서도 200권 이상이라는 많은 책을 소각했는데, 대목구장의 감수·인준을 통과하지 못한 책들일 것이다. [*베르뇌 주교가 1861년 2월 16일 홍콩 대표부 대표 리부와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39~141쪽.]

이러한 베르뇌 주교의 조치는 천주교서적의 정본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책들을 검열하여 없애버린 것이다. 이는 대목구장의 감수·인준을 거친 서적만이 공식적으로 제작·유포될 수 있음을 공포한 것이고, 선교사제나 신자들이 자의적으로 서적을 번역·저술하여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석원, 2021, 『베르뇌 주교의 조선 인식-선교지 조선과 조선인』 『교회사연구』 59, 한국교회사연구소, 114~115쪽 참조.]

사목서한의 공포 이후 베르뇌 주교는 선교사제들과 함께 기존의 기도문과 교리서적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서적은 새로 번역하거나 저술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서울에 목판소를 마련하여 천주교 서적을 널리 유통시키고자 했는데, 필사본 제작에 비해 다량의 책을 싼값에 만들어 널리 유포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신자들의 무지함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1859년 당시) 홍수로 인해 선교사제들이 여행할 수 없는 여름 동안 교리와 윤리에 대한 소책자들을 엮었습니다. 지금 마련 중인 인쇄소를 통해 이 책들이 싼값으로 선교지의 모든 지역에 보급될 것입니다.

[베르뇌 주교가 1859년 11월 7일에 포교성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31쪽.]

(1860년) 박해는 뜻하지 않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는데, 이를테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교리 문답서를 비롯해 여러 권의 기도서를 재검토, 수정, 증보했으며 그 외의 다른 서적도 여러 권 추가했어요. …… 이번 박해 덕분에 5권의 교리서가 막 신자들에게 배포된 상태이며, 아직 작업 중인 남은 2권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습니다. …… 더위가 오기 전에 무엇보다 우리 기도서(천주성교공과)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 게다가 그 서적들은 거의 전적으로 조선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작업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작해야 8, 9개월 그 작업에 매달렸을 뿐입니다.

[다블뤼 주교가 1861년 1월 24일에 부모에게 보낸 서한; 유소연 역, 『다블뤼 주교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내 포교회사연구소, 2018, 353쪽.]

선교사제들은 관할 지역 사목 방문을 쉬는 기간에 집중적으로 천주교 서적의 재검토, 수정, 증보, 또는 새로운 서적의 저술 작업에 매진했다. 위의 자료를 보면 1859년과 1860년, 특히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 1860년(경신)에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있는 프랑스인 선교사제에 비해 조선인 신부인 최양업 신부가 교리서와 기도서 번역 및 수정 작업에 큰 역할을 했다.

베르뇌 주교가 작성한 위의 서한에 의하면 1859년에 인쇄소를 마련하는 중이었는데, 아래의 다블뤼 주교 서한에 따르면 1861년 1월 24일 서한 작성 당시에 7권의 교리서 중 5권이 ‘막’ 신자들에게 배포되었고 기도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이때 배포된 서적이 목판인쇄본이었던지 명확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으며 필사본일 가능성도 있다.

우리 신자들에게 대단히 유용할 아주 굉장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쇄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도 부족하고 그들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비싸서 공급될 수 없었던 책들이 이제는 두루 배포되어 모든 가정에서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1년 8월 22일에 만주대목구 프랑클레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165쪽.]

마침내 인쇄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책을 보급할 수 있는 엄청난 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교리서가 인쇄되었습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1년 9월 30일에 홍콩 대표부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224쪽.]

위에 인용한 베르뇌 주교의 서한들을 보면, 1861년에 교리서(『성교요리문답』)가 인쇄되어 배포된 것이 분명히 확인되며 그해 여름 동안 몇 권의 책이 수정되었음도 알 수 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사제들의 사목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교리서와 기도서(『천주성교공과』)가 우선 번역·간행되자 베르뇌 주교는 사목서한(1862년 경)을 통해 신자들에게 새로 간행된 서적들을 알리고 이를 열심히 배울 것을 지시했다.

이제 성(교)회에서 반포한 바, 번역한 경문(經文, 기도문)[『천주성교공과』]과 『(성교)요리문답』을 각인(各人)이 힘써 배울지니, 번역한 경문은 뜻을 알기 쉽고 자기 열심을 감발(感發, 감동하여 분발함)케 함이니라.

[『병인치명사적』 16권 6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2020, 『병인치명사적』 3, 천주교 수원교구, 231쪽.]

‘문서선교’가 명시된 1857년 사목서한 공표 이후 천주교 서적의 수정·보완 및 저술 작업과 동시에 인쇄소 건립이 추진되었다. 인쇄소 건립 계획은 1859년부터 명시적으로 확인되며, 1861년에는 목판인쇄소가 건립되어 그해부터 교리서를 비롯한 천주교서적이 간행되었다. 이후 1866년(병인) 교육(敎獄, 천주교 박해)이 발발할 때까지 많은 천주교 서적이 간행되어 신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호 원고 모집 (마감 연기)

- 투고 마감일 : 2023년 1월 31일 (2월 12일까지 연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 심사를 거치는 정규 학술논문 이외에 보고서, 서평, 자료 및 소개(해제), 번역 등 교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형식의 글과 자료도 『교회사학』에 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